

Editoria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8;57(1):1-1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신경정신의학” 재도약을 꿈꾸다

간행위원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이 현 정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Dreaming of Re-Leap

Heon-Jeong Lee, MD, PhD

Editor-in-Chief, Department of Psychiat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신경정신의학’은 1962년 4월 30일에 창간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의학학술지 중에서도 손꼽히는 57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최고의 위치를 인정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국내 의학계 내에서도 최고(最古)의 역사를 가지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게재하는 학술지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외국학술지평가색인에 등재된 학술지-이른바 SCI 학술지-가 득세하는 시절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신경정신의학’의 위상은 최근 급속도로 하락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학회의 영문학술지 Psychiatry Investigation의 등장이 오히려 ‘신경정신의학’에 어려움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말로 발간되는 ‘신경정신의학’은 영문학술지인 Psychiatry Investigation과는 다른 가치를 갖는다. Psychiatry Investigation이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하여 우리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신경정신의학’은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무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영문지가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본연의 기능에 더하여 ‘신경정신의학’에 새로운 역할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술지가 새로 만들어지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세부전공 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야가 아니면 정돈된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오히려 혼란스럽다. 이번 호부터 ‘신경정신의학’은 학회 회원들과 전공의를 위한 <특집>을 발간한다. 연 4회 발간되는 매호마다 회원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의 특집을 기획하여 그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에게 종설을 의뢰하여 게재할 것이다. 신경정신의학 <특집>은 최고 권위자들의 임상경험과 학문의 깊이에서 나오는 정제된 지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번 호에는 ‘치매-인지 장애의 최신 지견과 임상적 적용’이란 주제의 특집으로 4편의 종설이 게재되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계의 발전의 중심에 있으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치매 분야에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도 도움될 수 있으며 최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신경정신의학 특집은 학회 회원들의 학문적 욕구 충족과 전공의에게는 교과서만으로 습득하기 힘든 최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신경정신의학’의 옛 명성을 되찾아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우리 학회 회원과 전공의들이 찾아서 정독하고 다음 호에 실릴 새로운 특집 종설을 기다리는 ‘신경정신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